

건축계 뉴스 / 정보

다음은 건설부가 마련한 「1982년 主要業務計劃解說」 가운데 주요정책 방향만을 뽑아 읊진 것이다. /편집자/

'82년은 第2次國土綜合開發計劃과 第5次經濟社會發展計劃이 同時에 着手되는 해로서 建設部가 管掌하고 있는 國土開發政策面에서 불 때 意義가 매우 큰 한해가 되고 있다.

이와같이 重要한 時點에서 '82년에 建設部가 떠나갈 主要施策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 '80年代 民主복지社會에 對應하는 國土政策의 強力한 推進이다. 이를 爲해서 國土의 均衡開發을 主眼으로 하는 第2次國土綜合開發計劃('82~'91)을 새로 着手하고 國土利用

'82 建設部 主要施策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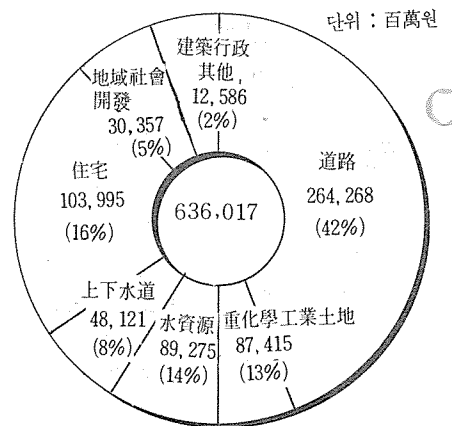
管理의 合理化와 地價의 安定化를 圖謀하는 한편 經濟, 社會與件變化에 對應하여 既存 都市計劃을 全面 再整備하고 自然環境의 開發과 保全을 調和시켜 나가는데 力點을 두고자 한다.

둘째, 國民生活의 基本需要 充足을 爲하여 低所得層을 爲한 中小規模 國民住宅의 建設을 擴大하고, 中小都市 生活用水供給施設과 下水道施設을 整備 擴充하고자 한다.

셋째, 經濟建設을 爲한 基盤構築事業을 工程計劃에 맞추어 繼續推進하겠으며 이를 爲하여 重化學工業基地 建設事業을 繼續推進하고 水資源의 多目的 開發事業을 積極化하는 한편 輸送效率의 增大를 爲한 國道의 整備擴充에 力點을 두겠으며, 또한 海外建設 輸出의 內實化를 爲하여 諸般 支援施策을 強化하고자 한다.

네째, 建設技術 開發을 促進하고, 올림픽 關聯事業을 積極 推進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깨끗한 建設風土의 造成을 爲하여 總力을 傾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建設施策의 具體的 推進을 뒷받침하게 될 建設部 豫算은 '81年 豫

算 4,798億원에 比하여 1,562億원이 增額된 6,360億원으로서 이를 事業別로 보면 道路事業費 2,643億원(42%) 重化學工業基地支援事業費 874億원(13%), 住宅事業費 1,040億원(16%), 水資源開發費 893億원(14%), 上下水道事業費 481億원(8%), 地域社會開發費 304億원(5%), 建設行政其他 126億원(2%)로 構成되어 있다.



'82豫算	'81豫算	增△減	對比 (%)
636,017	479,780 (追更62,506包含)	156,237	133

建設部 李圭孝次官 강연

아랍 文化會館에서

李圭孝건설부차관은 지난달 27일 한국아랍친선협회(회장 장성환) 82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강연회를 겸한 이날 동 協會定總에서 李차관은 「한국건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한시간에 걸쳐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 연설했다.

동 협회는 아랍권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 상호 문화교류를 비롯한 경제협력모색을 위해 각종사업을 펼쳐 민간외교의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동 협회는 협회지방간사업을 위시해서 아랍語 연수교육, 각종문화전시사업, 방문외교전개, 중동자료실 공개운영등 사업을 벌여 성과를 얻기도 했다.

건축법·건축사법 국회建設委 통과

건축허가업무창구 一元化

국회建設委는 건축허가창구의 一元化를 내용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과 建築士 應試資格基準을 완화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11일 하오 국회 建設委를 통과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은 건축허가에 부수되는 민원서류를 建築課에서 일괄접수 처리케 하고 건축에 관련된 각종 認·許可業務를 건축허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또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지방실정에 맞게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條例에 위임하고 기존시설에 환경오염방지 설치시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초과를 허용토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또 특수건물을 중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5층 이상, 연면적 33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유지관리상태를 폐지, 국민부담을 해소하게 했다.

한편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고쳐 대졸자의 경우 현행 졸업 7년 이후에서 5년 이후로, 전문대 졸업자는 9년에서 7년으로, 고졸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기타 실무경험자는 16년에서 14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소정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건축사면허취득의 특례를 인정하여 건축직 공무원의 離職을 방지하고 사기를 높여주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好轉예상

공공건설 조기발주 등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조기 발주와 건축허가 면적의 증가 등으로 오는 4~5월의 부동산경기가 호전될 전망이다.

부동산경기동향을 조사한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부동산경기는 적으나마 일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한산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부동산경기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어 4~5월경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 등이 안정되고 민영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됐으며 국민주택자금 대출금리 역시 2~3% 인하되어 부동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다소 증가될 것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토지개발공사는 공공주택의 저렴화와 대량 공이 가능한 건물의 척도조정법을 도입키로한 것은 주택의 생산성 향상에 팔목할만한 조치로 평가하고 이같은 노력이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위해 더욱 경주돼야 할 것으로 밝혔다.

垜地面積 20% 이상

나무심는 「新築」

육외 주차장 15%로

대지면적 20% 이상에 나무를 심는 신축건물은 25%로 돼있는 육외주차장을 15%까지 축소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대형건물주변 조경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나무를 심은 대지면적 만큼 육외주차장 외부면적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건물주변에 의무조경기준 이상의 나무를 심으려해도 육외주차장 외부면적에 묶여 심을 수 없는 현행 조례를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 조례는 또 3백평 미만의 건물을 4m 이상 도로(중전까지는 6m) 밖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 소형건물의 건축허가 조건을 완화시켰다.

無許 건물 陽性化심의

서울 시내 7만 8천여동의 무허가 건물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양성화심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계획을 마련, 15만 4천여동의 무허가 건물 가운데 1백 52개 불량주택재개발지구안의 4만 9천여동과 도시계획지구내의 2만 7천여동 등 7만 6천동을 제외한 7만 8천동을 양성화대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보전지구에 포함된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성화 심의를 받게 될 무허가 건물은 7만여동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습재해지구는 침수 지역이나 위험축대 지역이고 환경보전지구는 고속도로, 철도연변, 관광지 사적지 주변인데 이같은 지역은 대부분 불량주택재개발지구에 묶여 있어 대상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다는게 서울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재개발지구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으로 알 수 있다.

서울시는 6월말까지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토지불하조건 등을 규정한 조례와 시행지침을 마련, 7월 1일부터 양성화신청을 구청단위로 접수할 계획이다.

양성화 신청시에는 건축사가 만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하는데 구청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적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특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 법에서 제한한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았거나 건축선을 침범한 건물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있다.

특조법상 양성화제안은 소방도로 등 도로확보 때문으로 이 규정에 맞도록 집을 고쳐 재심을 거치면 준공검사필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양성화신청에 불릴 것에 대비, 7~8월에는 주 1회의 심의를 열

어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재 평당 1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설계도서등 작성비를 2천~3천원으로 낮추도록 건설부와 협의 중이다.

新築되는 모든 건물

외관·조경 엄격심사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외관, 조경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받게 됐다.

서울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대비,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가꿔나가기 위해 건축심의기준을 강화하고 대지면적, 건물높이 색깔 및 형태, 조경계획 등 건축심의의 심사대상이 되는 제반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 건축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관지구 종로, 의주로, 태평로 등 도시설계구역에 세워지는 건축물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31층 이상 건물 등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미적(美的) 기준을 강화했다. 즉 이제까지는 대지면적이 기준의 70% 이상만 되면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역제기로 했다.

조경계획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대지면적에 비례한 조경면적을 산출, 그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으면 되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식수위치 수종(樹種) 규격등을 건축계획서에 상세히 명시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건축물의 모양이나 색깔규제도 강화, 건축선을 이웃건물과 평행되도록 권장하는 한편 수준 높은 외장재를 사용하고 주위와 색깔을 통일시키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주차여건 및 차량 진입로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를 규제할 방침인데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70~80%에 이르던 건축심의 통과율이 최근들어 30~40%선으로 떨어지는 등 심의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再開發地域 일부해제

서울·부산 100여만평

정부와 民正黨은 전국의 再開發 지역중 서울지역의 22개구역 1백만평과 釜山의 4개구역 6만6천평을 재개발대상에서 해제, 이들 지역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합의했다.

羅頌昊 民正黨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재개발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어렵게 됐으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일부재개발지역의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관계당국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羅의장은 이어 民正黨은 앞으로도 나머지 재개발지역의 무허가건축물양성화를 위해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하는 한편 재해상습지역 또는 국가공익상 양성화가 어려운 지역은 별도 移住계

획을 세운뒤 재개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 서울의 경우 2백8개구역 4백90만평, 釜山은 6개구역 12만4천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정부와 民正黨이 합의한 再開發해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22개지역·괄호안은 면적·단위 m²)

- ▲鍾路구=①樓上동 1 일대(3만4천) ②三清동산 2의10(2만3천) ③松月동 2(6천8백)
- ▲龍山구=西氷庫동24의39(7천2백)
- ▲城東구=沙斤동 309(2만)
- ▲東大門구=新設동92(6천)
- ▲道峰구=①彌阿동860(7천) ②彌阿 6지구 791(8만1천) ③上溪동

- 山80(1만) ④中溪동 288(1만4천) ⑤中溪동 3지구426(1만5천)

- ▲恩平구=①水色동 150(11만7천)
- ②응암동397(12만5천)

- ▲西大門구=①弘濟동40(9만4천)
- ②弘濟7지구7(1만9천) ③北加동100(1만9천)

- ▲麻浦구=上岩동 2의21(5만4천)
- ▲江西구=①新月동169(8만2천)

- ②新井 1지구31(8만3천)
- ③新井 2지구414(5만6천)

- ▲永登浦구=堂山 1지구 1(8천)
- ▲銅雀구=舍堂 1지구산11(4만5천)

- ▲釜山(4개구역)
- ▲凡一동 1지구(4만)

- ▲佐川 2동(1만4천)
- ▲新仙 1동(2만3천)

- ▲東光동(1만4천)

잠실運 주변 35만평 종합정비

建築許可 기준도 強化

서울시는 88년올림픽에 대비,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의 정신여중-고, 우성아파트단지, 주공아파트단지 주위 35만여평을 종합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규제를 강화한 지역은 선수촌부지 7만9천4백평을 비롯, 건축심의 강화지역 15만7천여평, 도시설계 적용지역 4만5천8백평 등이다.

선수촌부지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통제되며 선수촌부지 남쪽의 건축허가 유보지역은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개발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일시 유보된다.

주공 3단지와 도시설계지역에 둘러싸인 건축심의 강화 지역은 ▲중전구청에서 취급하던 건축심의를 본청에서 처리하고 ▲건축이 가능한 매지면적을 중전 최소 27평에서 50평으로 높이고 ▲식수 등 조경도 다른지역의 경우 매지면적의 5~15%인데 비해 15%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건물의관은 타일이나 벽돌 등 고급외장재를 사용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과 선

수촌부지 주변을 도시설계구역과 건축심의 강화지역으로 나뉘, 도시설계구역은 설계가 확정될 때까지 허가를 유보하고 건축심의 강화지역은 허가기준을 강화시켜 허가를 내주게되나 건축허가 유보지역에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않아 개별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이 지역내의 보도블럭과 가로등을 고급화하고 전선, 전화선을 지하화하는 등 도시설계물도 함께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불란서 現代建築 강연회

마리옹 푸르농-브랑리여사

불란서 퐁텐블로의 미국 미술학교 교장인 마리옹 푸르농-브랑리여사 초청 강연회가 4월 2일 오후 6시에 불란서 문화관에서 열렸다.

불란서 문화관 주관과 홍익대학교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건축관계 인사와 건축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브랑리여사의 강연을 관심있게 경청했다.

이날 "불란서의 현대건축"이라는 주

제로 강연을 한 브랑리여사는 1955년에서 1980년 사이의 불란서 건축물을 슬라이드로 보여 주면서 현대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브랑리여사의 강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란서의 현대건축은 1940년에서 1944년 사이, 불란서 보자르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엄격성이 있다.

보자르학교는 19세기 말에 건립되었는데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학교에서는 각 분야의 예술을 좀더 가깝게 종합시키기 위해 특히 노력했다. 19세기 말, 미국에는 건축대학이 없어서 시카고 학과 등의 많은 미국학생들이 보자르에 와서 고전건축양식을 공부했다.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규모 건물을 많이 건립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60세 이상의 건축대학 교수들은 거의가 불란서 교수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중 한사람이 루이 칸이다. 루이 칸은 보자르에 대해 좋은 평을 할 것이다.

그러나 보자르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이 생겨난다. 르 꼬르뷔제와 그로 피우스가 그 대표적인 건축가들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수가 갑자기 많아져 1968년의 학생사태로까지 구체화되게 되었다. 보자르의 아카데미즘에 대한 반대자들은 만족할지 모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결국 미술만이 보자르에 남고 건축은 보자르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건축대학이 9개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 정부는 9개 중, 5개 대학을 신도시에 배치했고 4개 대학은 파리 근교로 분산시켰다. 결과는 많은 학생, 많은 아이디어들이 보자르를 폭발시키고 파리까지 폭발시킨 셈이다. 그것이 안타깝기만하다.

불란서의 현대건축은 정말 의의가 깊다. 그것은 시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축은 연속성·절단의 증인일 수도 있다. 특히 절단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대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은 광고가 아니라 획일성이다. 획일성을 탈피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美國서 태양열 技術 발표회

6월 1일부터 5일간

태양열기술 발표회와 국제박람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동안 미국에서 개최된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매년 미국 상무성이 수입업자를 위해 기획하고 있는 이 박람회는 태양열에 관한 기술을 비롯해서 관련 산업과 자재 등을 총망라해서 세계적인 수입업자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개최한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위해 주한미대사관에서는 관심있는 관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제교역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이용을 바라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 관해 문의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국대사관 상무담당관제자이 근덕씨(전화 722-2601)나 교환(4583)으로 연락을 바라고 있다.

□ 新刊書評

U. I. A 이슬람 回教文化센터

國際懸賞応募作品集

本書는 지난 1981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었던 제15차 U. I. A (國際建築家聯盟) 總회에 韓國代表團長으로 참가한 弘大의 羅相紀교수가 寄贈받은 圖書를 번안한 것으로서, 國內의 既成 建築人은 물론 建築學徒들에게 참고자료로서 出刊된 것이다.

本書의 내용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市에 건설하기 위한 이슬람 回教文化센터 國際懸賞応募作品 455점을 수록하였다. 특히 이 작품집은 U. I. A. 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 입선작과 더불어 세계 71개국에서 2,000여명의 建築家들로부터 접수된 455점의 작품 중에는 韓國建築家會員인 강석원·정진수 兩氏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기에 國際懸賞 設計에 뜻있는 建築家會員을 물론 力量있는 숨은 建築人과 學徒들의 研究資料로서는 더없이 좋은 책이라 믿는 바이다.

◇ 羅相紀 譯 ◇ 技文堂 發行 25,000원

(新版)空間·時間·建築 (I·II)

本書의 著者인 S. Giedion이 M. I. T 와 스위스聯邦工大, 그리고 하바드大學 등 教授職을 두루 역임하면서 講論한 내용을 集大成한 것으로서 서양의 많은 대학에서 教材로 사용되어온 名著中の 名著이며, 르·꼬르뷔제, 월터 그로피우스를 비롯한 세계 제1의 建築家들과 더불어 近代建築의 발전과 人間環境의 調整을 위하여 一線에서 혁신적인 實踐을 기울인 力書로서 建築의 바이블이라고까지 할만큼 큰 名譽를 지니고 있는 本書를 國際建築社會에서는 灵感을 불어 넣는 行動的인 論評書라고 절찬하고 있는 바, 우리의 建築界에서도 꼭 한번은 읽고 넘어가야 할 名著이기에 自身의 立場을 再論證해 보는 뜻에서도 愛讀할 수 있을 權하는 바이다. 〈心象〉

◇ 産業圖書 發行 ◇ S. Giedion 著
◇ 9,000원 ◇ 崔昌奎 譯

“住宅設計”발간

건축사·학생·일반인에 도움

주택을 설계하려는 건축사나 건축학도, 또는 주택을 지으려는 일반인들이 두루 참고할 수 있는 「住宅設計」 책자.

朱鍾元(서울공대 건축과) 교수가 쓴 이 책자는 全6章과 부록으로 꾸며져 있으며, 1 장에서는 사전조사에 대한 설명, 2 장은 주택의 유형을 분류해서 특색을 설명했고 3 장에서는 각실의 설계부터 창호설계 등 주호 설계방법을 설명했다.

4 장은 설비설계, 5 장은 주거환경 조성, 6 장은 설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주택설계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 형설출판사 발행/322P /5,500원

建築施工學 / 벽돌 두권

본회 회원인 張起仁(삼성건축)씨가 올들어 두권의 책을 출간했다.

全訂版인 “建築施工學”과 한국건축대계 II 로 “벽돌”—

이미 널리 알려진 건축시공학은 건축시공상의 모든 분야를 상세하게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판에는 과거의 시공법을 정리하고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工法을 기술한데 이어 유망시되는 재료, 구조 및 공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韓國建築大系시리즈 두번째로 발간된 “벽돌”은 우리나라 벽돌의 역사, 재료, 조적법, 구조, 시공 외에 세계제도법 등 벽돌의 모든 것을 학문적 체계로 기술해 놓은 책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벽돌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제초법이나 조적공법도 거의 동일하지만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1800년대(구한말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 제조술과 공법이 쓰이게 되었다”고 우리나라 벽돌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 〈用〉

□ 全訂版 建築施工學 / 보성문화사/7,900원
□ 韓國建築大系II 벽돌/보성문화사/6,000원

“어디로 많이 갔나?”

'82년도 건축과 졸업생(10개대학)

□ 절대다수가 건설업체로 55.2%

82년도 전국 10개 종합대학의 건축과 졸업생수를 종합한 결과 총 7백34명에 달했다. 물론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대학교를 총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대학교로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 한양대, 홍익대, 건국대, 인하대, 부산대, 동아대, 영남대, 전남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집계했다.

졸업생 수를 집계한 까닭은 내일의 한국건축계를 이끌어 나갈 건축공학도들의 분야별 취업현황을 점검해보고, 추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하는데 있었다.

먼저 건축과 졸업생들의 취업율은 타 전공분야 졸업생에 비해 역시 높아 약 63%(대학원진학·유학·군입대·미확인제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몰린 취업부문은 예년과 다름없이 건설업체로서 약 55%가 편중되고 있다.

그밖에 취업이 아닌 분야(대학원·유학·군입대·미확인 등)의 약 37%를 제외한, 설계사무소, 공무원, 교직 가운데, 즉 남은 프론테지인 약 8%에서 설계사무소를 직장으로 택한 졸업생수가 6.1%이고, 다음이 공무원 1.2% 교직을 택한 수는 0.1%로 분류되었다. <별표참조>

위에서와 같이 취업부문 가운데 건설업체 다음으로 설계사무소를 선택한 졸업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4백5명대 45명으로 거의 10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꽤 대조적이다.

□ 설계사무소에는 6.1%에 불과 理由 = 영세성 / 낮은 출세 / 생활보장 어려워

건축문화의 측면에서, 한 나라의 건축계 장래를 이끌어 나가는 요체는 우수한 창조적 작품설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학교에서 담은 학문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능력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의 실천도장으로서는 역시 현실 집착적인 시공분야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성 제발이 가능한 설계분야에서의 자기훈련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타난 졸업생들의 취업분야 기호도는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장래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 전문가로서의 사명감 심어 줘야

이들이 건설업체 쪽으로 몰리는 까닭은 알려진 바와 같이 우선 생활보장이 된다는 것과, 어떠한 이유로든 知名度가 높다는 것, 그리고 소위 출세가 빠르다는 現實安住심리에서 연유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설계사무소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까닭이 쉽게 밝혀진다. 즉, 생활보장이 쉽지 않다는 것과(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해도), 오랜동안 이른바 출세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능력을 쉽게 발휘할 수 없다는 점, 知名度가 훨씬 뒤진다는 점, 등을 그들은 들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건축학도로서의 사명감이나 원대한 理想이 없다고 몰아 부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이 헤아려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즉,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의식결여, 혹은 사회여건상의 문제, 나가서는 제도적인 문제 등등 그들의 시야를 보다 더 넓혀 줄 수 없는 제약조건들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직업선택에 있어 어느곳이 좋고 어느곳이 나쁘다는 式의 얘기는 말도 안되지만 전문인으로서 배운바를 더욱 높게 이룩하는 데에는 그 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긴 당장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첫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여기지만, 보다는 젊은 건축학도들이 정열을 쏟아 이 나라의 건축문화의 꽃을 만발하게 꽃피우겠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그 어떤 작업이 이제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하겠다. <*>

82년도 건축과 졸업생 취업현황

(3월말 현재)

구분	학교명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홍대	건대	인하대	부산대	동아대	영남대	전남대	계	비율 (%)
82년도 졸업생		45	73	193	100	62	53	37	40	103	28	734	734
건설업체		15	45	129	39	29	42	27	21	44	14	405	55.2 (%)
설계사무소			3	11	13	5	3	2	4		4	45	6.1 (%)
공무원				2	4			1		2		9	1.2 (%)
교직					1							1	0.1 (%)
대학원진학		24	9	16	10			2	5	9	6	81	11.0 (%)
군입대		3	9	23	19		7	5	7	21	2	96	13.1 (%)
유학			7									7	1.0 (%)
군입대 미확인		3		12	14							29	4.0 (%)
미확인						28				21		52	7.1 (%)
기타							1			6	2	9	1.2 (%)